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읍 고성리 고성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  
미상(여, 생년, 성산읍 고성리)

- 줄거리: 계모가 본처의 딸에게는 맛없는 콩만 먹이고 자기 딸에게는 맛있는 팥을 먹였다. 계모가 아무리 본처 딸을 괴롭히려 해도 새들이 도와주는 이야기이다.

**[조사자]** 콩데기 팥데기 틈나는 대로 하나만 골아줍서.

**[제보자]** 경 골으난 콩데기 팥데기 말 알아졌저. 콩데기 그것도 다슴어멍 그자. 막 굶인 체 허고, 옛날 날레 널어놔두민 생이가 오랑 오도도도 허게 까먹엉 다슴어멍이영 살앙, 새가 후 그거 까먹어불민 나 오늘 우리어멍 오민 욱 든넝가 무시거렌 골아 허고, 굶 터진 항에 다슴어멍이 다슴딸을 이제 즈들리젠 물 질영 오늘 물 질영 노렌 7득 지렌 허민 굶 터진 항에 물을 지어다 노민게 이제 엇일 거 아니, 엇이 민 일 가오랑 허카부덴, 물을 저물앙 지어놓고 날레 널영 저 다 행 어멍 허민, 생이는 그 다슴애길 도와줄라고, 똑똑똑똑 강 생이 이제도 밥주리 생이가 들뽀를 노민 여물 다 먹어가민 똑똑똑 까그네 소굽에 지름 빨아먹고 슬락허지 똑똑똑 까놔가민

“아이고, 요 새야, 요 새야, 그거 다 와그네 헤불민 우리 다슴어멍 오민 날 어멍 행 사느넝.”

허민 파르릉허게 새가 9라개 오민 도와주젠 헌 깐 새난, 새 놀개로 체는 짹 뿌려 놔고 그디 쓸만 잇고, 게난 지금 현재로 말허민 그자 용헌 사름 잘 뛴다. 용헌 사름 잘 뛴는 건 절대 아난디. 용헌 사름 잘 뛴다 뜻으로 그런 말로 낯인가 그런 전설이 잇인가 몰라. 자청비하고 남선비는 확실히 전설이 잇영 심방도 이제도, 그걸 떨어동 굶을 빨리 허젠 허죽 경 안 허연 막 굶허는 그 본풀이가 잇인 거. 진진허게 잇어.

**[조사자]** 경 행 콩데기 팥데기 어멍 행마씨?

**[제보자]** 콩데기 팥데기도 다 모르크라. 그거 아까 골으난 틈내젠 허난 그것도, 그자 다슴 어멍이엔 고생헤난 거. 콩을 삶으나 팥을 삶으민 팥물은 맛이 잇고, 콩물은 맛이 엇주게. 게난 다슴애긴 콩으로 만든 걸 주고 이녁 난 애긴 팥으로 만든 걸 주나. 이녁 난 애긴 팥물을 주난 얼굴 색깔도 검어지고 잘 안 뛴고, 콩으로 만든 건 다 슴애기 주난 다슴애긴 허영 허고, 잘 뛴고 보약 뛴고, 그런 뜻으로 막 말헌 거.

- 핵심어 : 콩데기, 팥데기, 콩, 팥, 다슴애기, 생이